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24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국제협력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팀장 이창훈 ☎440-3201 • 담당자 최혜원 ☎440-320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베트남 국회부의장 만나 우호 다져

- 베트남 국회부의장 일행 접견하고 양 국가 도시발전 기대 -
- 경제자유구역(IFEZ) 개발경험 및 투자 유치 성과에 큰 관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유정복 시장이 3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응웬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대표단 일행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응웬 득 하이 부의장 일행은 정우택 국회부회장의 초청으로 공식방한 중 인천시 경제자유구역(IFEZ)의 투자 성과와 개발 경험에 관심을 갖고 인천을 방문했다.

유정복 시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1992년 국교를 맺은 이후 현재 30여년간 무역과 투자에서 비약적인 상호 발전을 이뤄왔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무역과 투자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응웬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은 “오늘 인천 경제자유구역(FEZ)을 방문해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 인천의 괄목한 만한 투자성적을 직접 보게돼 대단히 뜻깊었다”며 “앞으로 인천의 선진화된 도시 모델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교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인천을 소개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역, 공적개발원조(ODA), 관광,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의 우호를 더욱 공고히 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인천시는 베트남의 하이퐁시와 1997년 7월 25일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인도적 의료지원사업과 문화교류, 투자, 교역 등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